글, 사진. 이봉식 객원기자

격조로 높이고, 해학으로 소통하다
물의 도시 '한국'으로 물들다



상. 양순열 개인전 《에픽 테일즈》 전시 전경
하. 《포이즈 앤 펀치라인(Poise and Punchline)》 전시 참여 작가들



제61회 베니스비엔날레의 주제는 'In Minor Keys'이다. 이 주제에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작가'들이 정면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번 지면을 통해 만나본 작가들은, 삶이 2026베니스비엔날레의 주제였다. 그들의 디아스포라적 삶과 여정 그리고 작품을 살펴보고자 현장을 다녀왔다. 9월 11일부터 11월 7일까지 열리는 《포이즈 앤 펀치라인(Poise and Punchline)》과 9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양순열 개인전 《에픽 테일즈(Epic Tales)》이다. 두 전시 모두 뉴욕 맨하탄 제니퍼방 갤러리의 제니퍼 방(Jennifer Baahng)이 기획했으며, 비엔날레와 병행하는 독립 프로그램이다.

'In Minor Keys' and 'Korean Contemporary Art'

제니퍼 방은 《포이즈 앤 펀치라인》을 비엔날레 주제에 대한 응답으로 설계했다. 제61회 비엔날레를 구상한 고(故) 코요 쿠오(Koyo Kouoh)에게 단조(minor keys)는 낯섦과 우수의 음역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서 기쁨과 위안, 희망, 초월이 함께 피어나며, 위기와 스펙터클의 소음에 맞서 감각과 정서, 주관성으로 돌아가는 일종의 '재조율'이 이루어진다. 단조는 회복과 저항, 관계의 공간이다. 기획은 이 낮은 음역에서 한국 미학의 두 축인 격조와 해학을 길어 올린다. 품위 있는 절제와 전복적인 재치는 서로 맞서지 않고 상생한다. 소리 높여 외치지 않되 웃음 속에 날을 감추는 해학은 단조의 정서와 맞닿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한국형 현대미술을 놓았다. 해학은 한국 문화와 예술의 깊은 철학적 토대이자, 한국의 창작이 끈질기게 이어질 수 있었던 힘을 떠받쳐 온 낮은 곳의 철학이다. 조각과 설치, 회화로 작업하는 작가들은 유머와 세련됨이 대립이 아니라 사회 비평과 정서적 울림을 위한 하나의 도구임을 보여 준다. 저마다 자기 서사의 주인인 작가들의 목소리는 쿠오가 말한 '다성적(多聲的, polyphonic) 모임'처럼 어우러지며, 주권적인 품위를 지키면서도 글로벌 동시대 미술 담론에 도전적인 펀치라인을 던진다.

차진호(Jean Jinho Kim, 1956~): 허공에 그리는 강철의 선

차진호는 독창적인 콜라주에서 대형 강철 구조물까지 형식적 추상을 탐구한다. 금속을 구부리는 절제된 추상에 변형과 역량 강화의 주제를 담는다. 〈Shall We〉는 표면과 색, 규모, 공간을 탐색하며 시간과 공간이 얽힌 고양된 상상의 순간으로 관객을 끌어들인다. 조각은 허공에 선을 긋듯 유려하고 기념비적이다. 정밀한 기하학과 조각 본연의 강도가 균형을 이루고, 파편과 흐름이 빚는 건축적 형태에는 장난기가 스민다. 〈Hold My Hand〉, 〈The Open Circle〉, 〈Powerhouse〉 같은 콜라주 역시 품위와 재치 사이를 오간다. 필립스 컬렉션을 비롯한 워싱턴 D.C.의 여러 기관에서 전시했으며 현재 워싱턴 D.C.에서 활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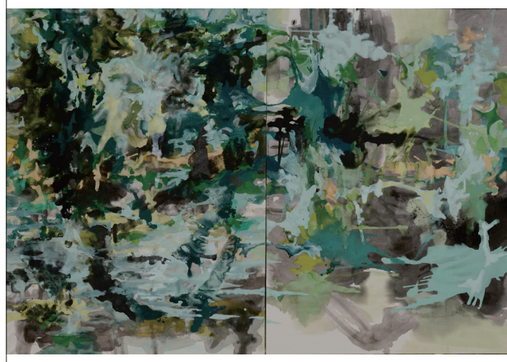
스테파니 김(Stephanie Kim, 1971~): 먹과 한지에 번지는 물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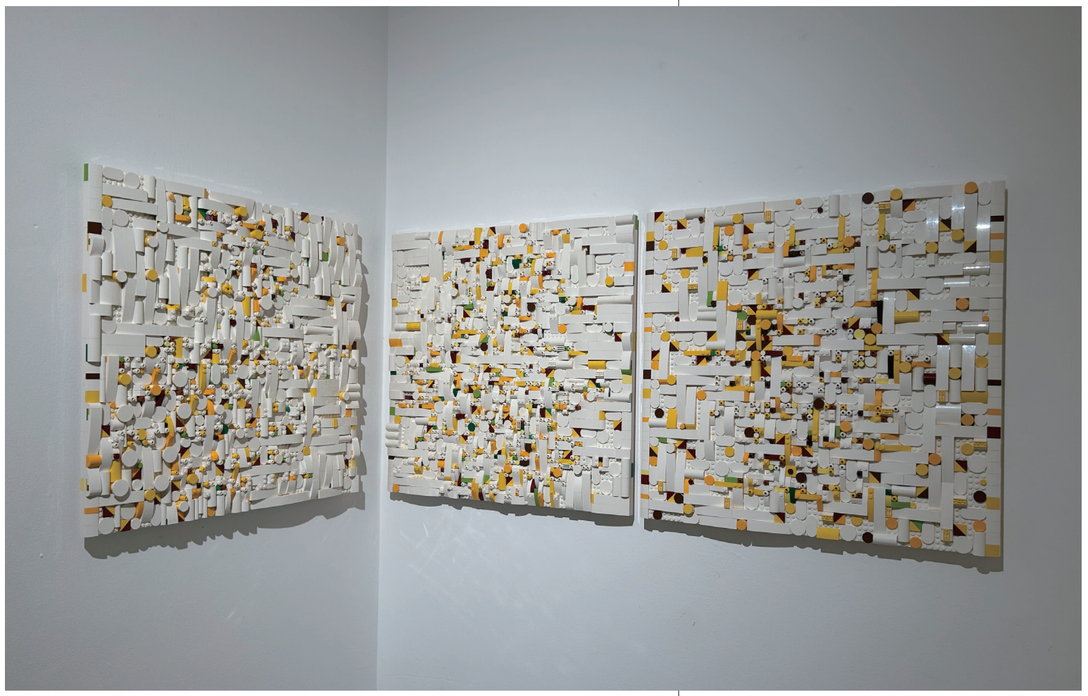
1971년생 스테파니 김은 기억과 자연, 정체성을 시적으로 엮는다. 특히 물에 비친 풍경을 담은 추상 회화는 숨이 멎을 듯한 아름다움을 지녔다. 먹과 분채, 연약하고 촉각적인 한지의 결로 끊임없이 변하는 삶의 찰나를 좇는다. 〈Resonance〉에서 표현적인 색의 마킹은 해안이 던지는 은근한 암시 너머, 본질로 증류된 자연 속으로 우리를 이끈다. 반복되는 패턴과 퍼즐처럼 변하는 형태 위에서 색은 기쁨에 찬 변모의 벽돌이 된다. 작가는 관객이 온전하고 치유된 자신과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동양화로 학사와 석사를 마쳤고, 뉴욕과 댈러스, 마이애미, 서울에서 전시했으며 뉴저지에서 활동한다.





좌. 차진호(Jean Jinho Kim) 〈Powerhouse〉, Collage on wood panel, 50.8×40.6 cm, 2026
우상. 《포이즈 앤 펀치라인(Poise and Punchline)》 전시 전경
우하. 스테파니 김 〈Resonance〉, Mulberry paper, ink, and powder pigment on wood panels, 2026





이미라(Meera Lee, 1962~): 터널 끝의 햇살, 환희의 고백

이미라의 그림은 붓을 든 순간의 황홀을 털어놓는 고백이다. 거리낌 없는 기쁨과 가벼운 축제의 장면을 따뜻한 햇살이나 밤의 불빛으로 가득 채운다. 〈The Cruise〉 연작은 일상의 시선으로 광활함을 엿보는 사적인 바다 풍경이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작가가 거듭 그려 온 '터널 걷기'는 의도된 장치다. 일렁이는 바다 위에서 끓어오르는 〈At Dawn〉은 영적 풍경으로 피어나고, 〈The Coast〉는 빠르고 자유로운 붓질로 인상주의의 원형을 불러낸다. 파스텔과 목탄, 닥지, 아크릴에 글루건과 스펀지까지 동원하는 재료의 대담함이 이를 뒷받침한다. 서울에서 활동하며 여의도 국회 갤러리, 도쿄도미술관 등에서 전시했다.

문재원(Jaye Moon, 1963~): 만지고 읽는 그림, 레고로 쓴 기억

문재원은 레고 브릭으로 점자 회화를 만든다. 점자를 읽든 읽지 못하든 모두를 위한 추상 회화이며, 포용과 촉각적 참여를 전면에 세운다. 〈도리화가(Dorihwaga)〉는 구전으로 이어진 판소리를 문자로 기록한 19세기 신재효와 그가 후원해 여성 소리꾼의 길을 넓힌 진채선의 이야기를 소리와 언어, 기억을 시각과 촉각으로 만나는 감각 경험으로 바꿔 놓는다. 〈Before Rain〉은 황순원의 1952년 단편 『소나기』의 한 대목을 점자로 옮겨 숫자와 기하학적 형태, 색과 리듬으로 번역한 비촉각 점자 회화다. 브루클린 미술관, 퀸즈 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미술관에서 전시했고 폴록-크래스너 재단 지원금을 받았다. 점자 작업은 한국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도 실렸다. 뉴욕에서 활동한다.

상. 문재원의 레고블록 점자 회화 전시 전경
하. 이미라 설치 작품 전시 전경



김학균(Hank Kim, 1972~): 슈퍼맨이 된 이민자

김학균은 '일상의 미학'에서 출발한다. 〈Super Babies〉는 마이너(minor)한 비례와 선명한 실루엣, 매끈하고 단단한 표면 위의 강렬한 색으로 권력의 상징을 최소한의 어휘로 압축한다. 뿌리는 경직된 양반 사회를 은근히 조롱하던 후기 조선 민화의 웃음과 단청, 오방색의 모습이 보인다. 그는 이 전통을 현대 조각으로 접붙이고 아메리칸 팝아트와 와비사비, 니체의 위버멘쉬를 겹친다. 슈퍼맨이 되어 현실을 넘어서고 싶은 안티 히어로는 이민자이자 가장이며 작가인 작가 자신이다. 이번 전시 작품인 〈David Super Baby〉의 선명하고 화려한 한 색면은 그 웃음을 희망으로 밀어 올린다. 뉴저지에서 활동하며 300회 이상의 전시에 참여했다.

구본정(Bone Koo, 1973~): 흐릿한 경계 위에 내리는 축복

구본정의 회화는 자기 치유의 독백이자 헌신의 서사다. 르네상스의 명료한 공간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화면은 번짐과 확산, 회화적 불안정으로 흔들린다. 다섯 점의 유화 톤도 연작 〈Benedictions〉는 인물의 가면을 벗겨 그림의 영혼에 닿으려는 마음의 풍경이다. 사진 같은 정밀함에 빛과 크기의 미묘한 어긋남을 더해 관객이 무엇이 현실인지 되묻게 하고, 홀로 있음의 친밀한 감각을 영화적 정서로 기록한다. 베르메르와 렘브란트에 보내는 인사 위에서 그는 속도를 늦추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고 권한다. 홍익대학교에서 학사를, 드루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마쳤고 뉴저지에서 활동한다.

또 하나의 서사, 양순열(Yang SoonYeal) 《에픽 테일즈》

같은 시기 베니스에서는 양순열의 베니스 첫 대규모 개인전 《에픽 테일즈》가 열린다. 역시 제니퍼 방이 기획했고, 무대는 몰타 기사단(Sovrano Militare Ordine di Malta)의 역사적 스테이트 룸이다. 기획은 이 전시를 가정의 무의식과 무한한 우주가 만나는 지점으로의 몰입으로 설정하고, 역사의 중력과 미래의 부유 사이의 마찰을 파고든다. 인간 조건과 원초적 환경 사이의 정서적, 심리적 공명, 곧 상호주관성이 물음의 중심이다. 중심에는 자동차 도장용 고광택 래커로 마감한 거대한 달걀형 조각 오뚝이(Ottogi)가 선다. 전통 완구 오뚝이는 구조적 회복탄력성의 원형이자 심리의 평형을 잡아 주는 닻이 된다. 이를 에워싸는 〈The Elysium〉은 고전 액자에 담긴 프리즘 마감의 거울 회화다. 작가는 거울에서 허영을 걷어내고 '틈(Teum)'이라 부르는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문으로 되돌려 놓는다. 흑연과 목탄, 반사 수지로 빚은 화면에서 관객의 모습은 성운과 영적 풍경으로 녹아든다. 묵직한 조각과 거울이 대화하는 이 공간은 인류사의 무게와 곧 도래할 디지털 미래의 무중력을 함께 마주하라고 관객에게 요구한다. 1959년생인 작가는 회화와 조각, 퍼포먼스를 아우르며 경기도미술관과 국회 갤러리에서도 작품을 선보였다.

결국, 깊이가 가장 멀리 간다

베니스에서 한국 작가들은 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판을 흔든다. 민화의 웃음과 판소리의 기억, 먹과 한지의 숨결, 레고 브릭의 점자와 거울 속 우주가 한 도시에 겹쳐 울린다. 서로 다른 목소리는 하나의 음으로 뭉뚱그려지지 않고 각자의 음색 그대로 화음을 이룬다. 가장 깊이 있음이 가장 멀리 간다는 사실을, 이 가을 베니스의 한국 현대미술이 증명하고 있다. 《포이즈 앤 펀치라인》은 11월 7일까지, 《에픽 테일즈》는 11월 15일까지 관객을 맞는다. 문의는 BAAHNG.COM에서 할 수 있다. 펀치라인은 이미 던져졌다. 이제 남은 일은 귀를 낮추고 듣는 것이다.





상. 김학균 〈David Super Baby〉, Acrylic and gouache on canvas, 121.9× 91.4cm, 2026
하. 구본정 〈Dissolution〉, Oil on Canvas, 30øinches, 2026